

캘리포니아 주의 교회들을 위한
노동절 주말 쉬임 특별 집회
2020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메시지 1

미국의 중요성을 보며
신부의 준비로서 몸의 건축을 위하여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완전한 복음으로 확산할 필요성

성경: 행 17:26, 계 19:7, 12:6, 학 1:7-8, 골 3:10-11,
딤후 2:4, 엡 3:9, 마 24:14, 45, 28:19, 계 6:1-8

- I.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은 세계 정세를 안배하셨다. 역사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의미가 가득하게 된다 — 행 17:26-27, 단 2:31-45, 5장 및 30 절의 1 번 각주.
- II.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준비하신 것은 다만 복음 전파나 진리를 가르침이나 성경적인 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부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 계 19:7:
 - A.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갖고,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의 실재, 곧 실제내용으로 갖고, 각 지방 교회를 금등잔대로 만드는 것이다. 몸의 생활은 로마서 12 장의 실재에 도달할 것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다시오심을 위한 신부의 준비가 될 것이다 — 롬 8:2, 12:1-2, 계 1:20, 19:7.
 - B. 미국의 주도 아래 있는 세계 정세는 전적으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 III. 미국은 새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일으켜 졌다 — 골 3:10-11.
 - A. 오늘날 미국은 전세계의 지리적인 중심지이며 두 개의 대양을 양 날개로 가진 큰 독수리와 같다.¹
 - B. 미국은 사람들이 거하는 땅의 중심지로 일으켜진 목적은 새 사람을 위한 것이다.
 - C.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국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으며 모든 것은 새 사람을 위한 것이다.
- IV. 주님은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한 기지가 되도록 미국을 선택하셨다.
 - A. 우리는 주님의 오늘날의 움직임은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은 회복의 확산을 위해 이러한 마지막 세계 정세, 즉 미국의 우월함을 사용하실 것이다.
 - B. 주님의 회복의 확산과 주님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 곧 신부의 준비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주님은 주권적으로 미국을 준비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셨다.
 - C.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해 미국을 사용하실 것이다.
- V.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의 확산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 마 24:14, 28:19:
 - A.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에 이러한 네 가지, 곧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네 마리의 말을 탄 기수들처럼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달릴 것이다 — 계 6:1-8.
 - B.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의 법적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여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부이자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 딤후 1:3-4, 계 1:10-11, 21:2, 9-11.
 - C.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는 것이다 — 엡 3:8-11, 계 21:2, 10.
 - D. 사실상, 복음은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포함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회복을 위해 복음의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고 이 진리들을 도처에 전하고자 하는 부담을 주시기를 바란다 — 엡 1:13, 딤후 2:15, 3:14-17, 딤후 2:7, 사 11:9, 단 11:32 하-33 상.

- E.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진리들, 특별히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중심적인 이상을 확산하기 위한 ‘큰 기업’을 위임받았다. 우리는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 곧 이러한 진리들을 확산하기 위하여 나가기 위해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를 전혀 갖지 않는 이들이 필요하다 — 마 28:19, 딤편 2:4, 고후 5:14-15.
- F.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확산한다면, 우리는 제때에 주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신실한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위임을 이룰 것이다 — 마 24:45.

VI. 우리는 지역의 거주민들 중에서 사람을 얻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보아야 한다.

- A. 우리는 반드시 지역의 거주민들 중에서 증거를 얻기 위해 주님께 필사적이게 되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얻지 못한다면 장래에 주님의 증거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
- B. 우리 가운데서의 증가는 주로 각각의 도시에 있는 그 지역의 전형적인 사람들에서 있어야 한다.

VII. “나는 오십 주의 주요 도시들에 지방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경륜으로 되돌아가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48 장.

- A. 먼저, 우리는 반드시 대도시의 중심에 지방 교회의 강한 증거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전역의 전략적인 도시들로 교회 생활을 확산해야 한다 — 비교, 행 1:8.
- B. “나는 우리가 미국의 바이블 벨트를 구성하는 미국의 남동부와 중남부에서 주님의 회복의 강한 증거를 세워야 한다고 느낀다. … 나는 바이블 벨트가 미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믿는다.” — 위트니스 리 전집, 1981 년판 1 권, “신약 사역을 수행함,” 영문판 37 쪽.

VIII. 사탄적인 혼돈 가운데서도 신성한 경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번제물을 바쳐서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이 땅과 자연계가 보존될 수 있었다 — 8:20-22:

- A. 오늘 우리도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바쳐야 한다.
- B.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바칠 때 우리는 “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도덕성과 혼돈이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시도록 요청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 C.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신성한 경륜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구원하도록 도울 것이다 — 비교, 단 9:3-20.

IX. “시간은 짧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웠다. 당신이 세계 역사와 역사의 추세를 안다면, 하나님이 한 단계 전진하시기 위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계의 강대국으로 삼을 것 같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미국이 그분의 최종 움직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지막 강대국임을 믿는다. 그분의 마지막 움직임이 이 네번째 단계는 그분의 많은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을 살고 그들이 사는 지방에서 금등대가 되므로 그분의 신부가 예비되는 그 영원한 갈망이 성취되는 것이다” — 위트니스 리 전집, 1981 년판, 1 권,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 4 장.

메시지 2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몸의 하나를 지키고 한 마음 한 뜻을 실행함

성경 말씀: 요 17:11, 20-21, 엡 4:1-6, 13, 행 1:14, 2:46, 4:24, 31-32 상, 5:12, 15:25, 마 18:19, 롬 15:5-6, 12:16, 고전 1:10, 고후 13:11, 빌 1:27, 2:2, 4:2

I. 하나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과 연합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 하나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다— 요 17:11, 21-23, 엡 4:4-6.

- A. 신약에서 믿는 이들 간의 하나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요한 복음 17 장에서이다—요 17:11, 21-23.
- B. 이 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기도에서 하나를 다루신다. 20 절과 21 절에서 주님은 모든 믿는 이들이 ‘우리 안에서’, 즉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이기를 기도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이다.
- C.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의 연합이므로, 이 하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4:4-6.
- D.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즉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기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를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기요하고 필수적이다—엡 4:1-3

II. 교회 안에 있는 참된 한마음 한뜻은 몸 안에서 하나를 참되게 실행하는 것이다.

- A. 우리는 하나와 한마음 한뜻이 신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문제임을 보아야 한다—엡 4:3, 롬 15:5-6.
- B. 우리가 참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고, 교리에 있어서 하나이며, 실행에 있어서 하나인,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인 교회를 알아야 한다—고전 12:13, 4:17, 7:17.
- C. 하나는 몸과 같다. 한마음 한뜻은 몸 안의 심장과 같다. 하나는 또한 호두의 껍질과 같고, 한마음 한뜻은 껍질 속의 핵과 같다.
- D. 마태복음 18 장 19 절에서 한마음 한뜻을 말하는 헬라이어 단어 ‘숨포네오(sumphoneo)’가 사용된다.
 - 1. 이 단어는 ‘조화 가운데 있음 또는 일치함’을 의미하며 조화로운 악기의 소리나 음성을 가리킨다.
 - 2. 결국, 한마음 한뜻, 혹은 믿는 이들 간의 내적 느낌의 조화는 음악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아름다운 선율이다. 이와 같은 한마음 한뜻이 하나의 핵이다.
- E. 사도행전 1 장 14 절에서 또 다른 헬라이어 단어 ‘호모썬마돈(homothumadon)’이 한마음 한뜻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 1. 호모썬마돈(homothumadon)은 강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호모(homo)는 ‘같은’을 의미하고 썬모스(thumos)는 ‘생각, 뜻, 목적 (혼, 마음)’을 의미한다—롬 15:6.
 - 2. 이 단어는 사람의 전 존재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의 조화를 가리킨다.

III. 한마음 한뜻은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의 실행을 위한 기반, 즉 터이다.

- A. 우리가 주님의 회복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리고 주님의 현재의 최신의 움직이심에 대해 진지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 한 가지, 곧 한마음 한뜻을 돌보아야 한다.
- B. 신약에서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문제는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행 1:14, 2:46, 4:24, 31.
- C. 성경의 어떤 책도 사도행전 만큼 한마음 한뜻에 관해 많이 말하지 않는다—행 1:14, 2:46, 4:24, 5:12, 15:25.
 - 1. 사도행전에서 백 이십명이 혼과 마음의 주변과 안에서, 한 생각, 같은 생각, 같은 뜻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기도했다—행 1:14, 영한 동번 찬송가 779 장.
 - 2. 사도행전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하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한다. 그러나 초기의 제자들이 땅에서 주님의 움직이심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길들과 수단들과 매체들과 실질들을 취했다면 그들은 이 한마음 한뜻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 D.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심각한 필요가 한마음 한뜻의 회복임을 보아야 한다. 한마음 한뜻은 신약의 모든 축복을 여는 만능 열쇠이다.
 - 1. 군대에서 충격력은 사기에 있다. 군대에서 사기는 한마음 한뜻이다.

2. 우리에게 많은 좋은 가르침들이 있고, 교회의 터가 있고, 모든 신성한 공급이 있지만 사기가 문제이다.
 3. 한마음 한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에 의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기가 어렵다.
 4.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같은 한 영 안에 있고 같은 한 혼을 갖기를 배워야 한다—빌 1:27.
 5.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 안에 있도록 조율되어야 한다—고전 1:10, 빌 2:2, 4:2.
- E. 우리는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해야 한다.
1. 유일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유일한 길을 구성하는 실질은 기도와 그 영인데, 기도와 그 영은 말씀으로 귀결된다—행 4:31.
 2. 사도행전에서 충격력 있는 복음의 확산의 세 주요 요인들은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다. 한마음 한뜻은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의 열쇠이자 생명 맥박이다—행 4:31, 24.
- F.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마음 한뜻을 붙잡아주는 요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가르침 안에 제한할 때, 우리는 하나 안에 지켜질 것이고 한 목적을 위한 한 길을 가질 것이다—행 2:42 상, 46 상, 비교 딤후 1:3-4.
- G. “주님의 회복이 땅에 확산되기 위해, 의견들이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이다. 모두 한마음 한뜻 안에 있고 나팔을 불며 한 인도 직분을 받아들여야 한다”—윌트니스 리 전집, 1987, 2 권,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 p. 103.

IV. 섞임은 몸의 하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고전 12:24-25.

- A. 섞인다는 단어는 ‘조정되고, 조화되고, 고르게 되고, 연합되는’을 의미한다. 섞인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또한 구분되는 것들을 잃어버림을 내포한다—고전 12:24.
- B. 섞임은 우리가 제해될 것(crossed out)을 요구한다. 섞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그 영에 의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몸을 위해 할 것을 요구한다.
- C. 이것은 우리가 교통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통은 우리를 고르게 한다. 교통은 우리를 조정한다. 교통은 우리를 조화시킨다. 교통은 우리를 연합시킨다. 교통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제하고, 공동의 목적, 즉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것이다—요일 1:3, 엡 4:16, 계 21:2.
- D.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개별적 지체들의 섞임과, 권역에 있는 교회들의 섞임과, 모든 동역자들의 섞임과, 모든 장로들의 섞임을 가져야 한다.
- E. 지금부터 교회들은 자주 함께 모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현 시대의 현대적 편의기기로 말미암아 편리하게 서로 섞일 수 있다.

- V. “누구든지 부담을 갖고 기꺼이 이 길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은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나 자신을 분발시키고, 여러분 모두를 분발시키고자 합니다. 한 하나님, 한 주, 한 영, 한 그리스도, 한 몸, 한 교회, 한 증거, 한 일, 한 가르침, 한 인도 직분, 한마음 한뜻이라는 ‘하나들’의 길을 갑시다”—윌트니스 리 전집, 1986, 1 권, ‘장로 훈련, 7 권;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한 마음 한 뜻’ pp. 170-171.(영문판)

메시지 3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활력화 됨

성경: 애 3:22-23, 잠 4:18, 시 119:147, 계 2:4-5, 요일 1:3, 7, 9, 롬 12:1-2, 11, 딤후 2:22, 행 1:8, 14, 4:8, 31, 롬 15:16, 계 1:5-6, 벤티전 2:5, 9, 학 1:8

- I.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부흥은 아침에 발생한다.
 - A. 우리는 반드시 부흥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기초한 아침 부흥이어야 한다 — 애 3:22-23.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해의 움직임에 따르는 생활이어야 한다. 해가 떠오를 때 우리도 해를 따라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 — 샛 5:31, 잠 4:18 및 각주.
 1. 영의 훈련의 첫째 단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곧 주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님께 말하는 것을 더하는 것은 사람의 심호흡과 같다 — 시 119:147 상, 애 3:55-56, 롬 10:12 하-13.
 2. 영의 훈련의 둘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을 완전히 연합시킬 것이다 — 시 119:147 하, 엡 6:17-18.
 3. 우리가 주님과 갖는 시간에서 주된 것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내적인 유죄판결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들, 결점들, 패배들, 잘못된 것들, 실수들, 죄악을 주님께 철저히 자백함으로 이루어진다 — 요일 1:7, 9, 시 51.
- II. 활력화되는 것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것을 뜻한다. 활력 그룹은 교회를 위해 증가를 얻기 위한 살아있고 활동적인 사람들인 활력화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 A. 활력은 영적 실재이다. 높은 진리들과 영적 풍성들의 실재는 활력이다 — 요삼 3-4 및 각주 3
 - B. 비록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실재, 곧 주님 자신에 대해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남은 이들이 있다 — 눅 1:53, 6:21 상.
 - C. 성도들의 활력, 곧 그들의 일상 생활의 영적 실재는 찾는 이들을 만질 것이고 그들의 영적 배고픔을 만족시킬 것이다. 활력은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이다 — 비교, 행 2:42-47.
- III. 우리는 활력화되는 길을 보아야 한다.
 - A.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고려해 보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사랑에 있어서 분발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활력화되게 할 것이다 — 롬 12:1, 엡 2:4-5, 계 2:4-5, 요일 1:9.
 - B. 우리는 주님과 또한 추구하는 성도들과 긴밀하고 친밀하며 철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이들을 동반자로 얻어야 한다 — 요일 1:3, 빌 2:1-2, 행 11:25, 30, 딤후 2:22, 단 2:13, 17-18.
 - C. 우리가 교통 안에서 동반자를 얻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는 것에,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에, 이 시대를 본받는 것에서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에, 열심을 내는데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기를 배워야 한다 — 롬 12:1-2, 11.
 - D. 교통과 자백과 헌신의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기도 생활 안에 들어간다.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그 영 안으로, 곧 본질적인 영, 경륜적인 영,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안에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이 영을 따르는지 배운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활력적인 사람들이다 — 행 4:31, 16:6-7, 고후 2:13.
- IV. 로마서 15 장 16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말한다.
 - A.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으로서 바울은 그러한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분주했다.
 - B.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모든 선민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 계 1:6, 비교 출 19:6.

1. 신약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제사장들이지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제사장 체계가 된다 — 계 1:5 하-6, 5:9-10, 벰전 2:5, 9.
 2. 로마서 15 장 16 절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모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 C.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의 특출한 본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본이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도 해야 한다 — 딤후전 1:16, 살후 3:9.
- D.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세 단계의 드림에 있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했는지 보아야 한다.
1. 첫째,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롬 15:16). 우리는 매일 죄인들을 위해 수고해야 하고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분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부분,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증가로 만들어야 한다.
 2. 둘째, 바울은 믿는 이들을 이끌어 그들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했다. 우리는 반드시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처럼 영적인 아기들을 먹여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 후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 롬 12:1, 살전 2:7.
 3. 셋째, 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기 위해 모든 지혜로 각 성도를 권유하고 가르쳤다.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얼굴을 마주하고, 이집저집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 — 골 1:28-29, 행 20:20, 31.

V.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신약의 제사장 체계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A. 복음 전파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매일의 일, 심지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매일의 의무이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활력을 주는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힘쓰고 분투한다는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 행 5:42.
- B.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활력을 주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 롬 15:16.
1.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학급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 마 28:18-19.
 2.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 엡 6:18-19, 비교, 눅 20:2-3, 행 13:2-4.
 3. 우리는 복음 전파를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하며, 우리의 시간의 예산을 세움으로써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한다.

VI.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개인적인 방식으로 수고해야 한다 — 학 1:8

- A.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재료들을 모으는 것이다 — 학 1:8, 찬송가 #923(영한).
- B. 우리에게 “새로운 피”, 곧 새롭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개인적인 방식으로 수고하기 위해 강한 결심을 해야 한다.
- C.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한 합당한 증가이다. 우리는 견고한 건축을 위한 견고한 지체들이 필요하다.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길에 따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몇몇 성도들이 필요로 하신다. 그럴 때 주님은 길을 갖게 될 것이다.

- VII.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기는 자들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력을 주시는 그분의 역사(歷史)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생명에서, 생활에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함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로 행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활력화 되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적극적이어야 한다.” (여호수아기 라이프 스타디 1 장).**

메시지 4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우주적인 확산을 위해 이주함

성경 말씀: 계 1:11-12, 20, 행 8:1, 4, 히 11:8, 13, 롬 4:12, 삿 5:15하-16

- I.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우주적인 확산을 위해, 우리는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요 5:26, 11:25, 요일 5:11-12, 롬 8:2, 고전 1:2, 계 1:11-12, 20.
 - A.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주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은 형성되었다. 온전한 실체인 이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된 후, 이제 교회의 확산이 필요하다—행 8:1, 4, 9:31.
 - B. 우리가 교회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가서 지방 교회들을 일으킬 위치와 권리와 기회와 심지어 위임이 있다—행 1:8, 13:1-3, 갈 1:2, 계 1:11.
 - C.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여러 지방들에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교회 나무들을 심는 것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부담은 한 그루의 나무인 교회를 각 도시와 마을로 가져가 그곳에 교회를 심는 것이다—고전 1:1-2, 살전 1:1, 행 8:1, 13:1, 골 4:15-16.
- II.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오고 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 A. ‘오다’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다.
 1. 주님은 안식과 생명과 생수와 구원을 위해 그분께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마 11:28, 요 5:40, 10:10, 7:37.
 2.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 그분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가서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다—마 24:14, 28:19, 행 1:8.
 - B. 우리는 오기만 하고 가지는 않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오고 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마음껏 흐르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다.
- III. 성경은 믿는 이들의 이주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일으켜 지기가 매우 용이함을 보여준다.
 - A. 오순절 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았다. 이 새 신자들이 함께 모이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 증가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다—행 2:41, 1:8.
 - B.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억지로 떠나게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증언하도록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날 것을 허락하셨다—행 8:1, 4.
 - C. 결국, 여러 장소, 곧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이방인의 도시인 안디옥에까지 교회들이 일으켜 졌다. 이 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 일으켜 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 일으켜 졌다—행 9:31, 11:19-23.
- IV.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주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요인들을 이겨야 한다.
 - A.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주하도록 환경 가운데 많은 준비를 하셨을 지라도, 이주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본성, 습관, 가족 관계, 친구들, 직장일과 관련한 요인들, 지리적 요인들, 재산, 다른 문화들, 새로운 환경들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한다.
 - B.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을 이겨야 한다. 주님께 우리의 타고나 기질과 이주에 대한 열망이 부족함을 깨뜨리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C.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반드시 그분께 우리가 이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지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 V.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땅에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체류자여야 한다—히 11:8, 13, 롬 4:12.
 - A.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서 가나안에 거했다. 그는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살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체류자였다. 따라서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다—창 12:7하-8과 각주 7³과 8², 히 11:8, 13과 각주 13².
 1.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창 13:3-4, 18.
 2.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더 좋은 고향, 즉 하늘에 속한 고향, 즉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고대하고 있다는 표현이자 선포였다—히 11:9-10, 13-16, 10:22.

- B.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증거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체류자로서 살아야 한다. 즉 우리는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 우리가 체류자의 특징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유지할 수 없다.
- C. 우리가 오랜 기간 한 장소에 머물 때 마다,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릴 위험에 빠진다. 이주는 우리의 뿌리를 땅으로부터 뽑아내고, 우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 D. 모든 세대를 통해, 교회들의 하락은 종종 이주의 부족함 때문이었다—행 8:1; 21:20, 비교 신 4:25 과 각주.
- E.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집회들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영적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것이 그들 안으로 축적되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갈 때, 그들 안에 축적되었던 것이 나올 것이다.

VI. 우리는 주님의 증거의 확산을 위해 미국에 있는 전략적 도시들로 이주해야 한다.

- A. 성도들이 어떤 한 장소나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이주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곧 강을 건너는 사람이었다—창 14:13.
- B. 어떤 지방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주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지방은 ‘사해’가 될 것이다.
- C. 어떤 특정 지방의 교회가 그와 같은 사해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물’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운하’가 파져야 한다.

VII. 우리는 이주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 A.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이주하기를 선택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이며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 B. “르우벤의 분파들(물줄기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네./ 그대 어찌하여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양 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의 분파들(물줄기들) 가운데는/ 마음에 큰 성찰이 있었다네”—삿 5:15 하-16 (ASV):
 1. 물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상징한다(시 23:2, 렘 17:7-8). 이 구절들에서 르우벤 자손 중 어떤 이들은 물 줄기들 옆에, 즉 하나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마음에 큰 결심을 했고 마음에 큰 성찰을 가졌다.
 2. 그러나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양 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있기를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오락이 있는 생활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쉬면서 움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정착하는 것은 편하고 안락하며 즐기는 생활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하는 것은 수고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 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VIII.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계 정세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그 길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가정과 가족을 당신께 헌신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접촉하기 위해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말씀을 갖게 하소서”—윌트니스 리 전집, 1984, 4 권, ‘복음 전파를 위해 일어남’ p. 376. (영문판)